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삼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돌고 도는 이치에 자유인 도리 있어요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인지요. 모든 생명들이 몸 받을 때 한순간 생성되었다가 몸벗으면 소멸되는 허상인지, 아니면 영원성을 가진 실상인지, 또한 영원한 생명의 뿌리인 불성과 무엇이 다른지 자세한 가르침 바라옵니다.

불성이란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원이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 없다는 말이 필요없겠지요. 불성을 달리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다. 한마음이다 한 것은 다 이렇는데 불성으로 인해 일체만물이 들고 나게 되니 영원한 생명의 뿌리라고 해도 되겠지요.

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자주 물어오는데 내 영혼 네 영혼 하는 식으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마음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여 살던 습 때문에 몸 떨어치고 나서도 여전히 나니 너니 분별을 하게 되고 새 몸을 애타게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명을 벗지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 없음을 따질 게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에 영매이지 않고 놓고 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아들이 연애에 빠져 방황해요

저는 57세로 1남1녀의 아버지입니다. 몇 지의 글로 큰스님을 뵈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의 안내로 한마음선원과 인연을 가진 지 3년이나 됩니다.(현대불교신문 구독도 3년이나 됩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관' 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나, 저의 마음 공부 부족으로 아들은 대학 4년생인데, 고등학교부터 사귀던 소녀(고졸)가 있어, 양기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귀기 시작하여 대학 공부를 못하고 정시 졸업이 안 되는 지경에 왔습니다.

아들은 1년 전에 소녀와의 불화로 목숨을 끊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출근이 두렵고, 집에서 외출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내와 그로부터 아들 생각으로 불면 중에 고생합니다. 큰스님, 저의 아들이

조급한 마음 털어내고 돌에 피가 배일만큼 "주인공 너만이 할수 있어" 간절히 놓고 관하세요

소녀를 가까이 않고 학생으로서 자세를 갖출 수 있게 '관' 하는 말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으며, 이 기회로 마음공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녀문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요. 몸뚱이를 잡아 매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통신이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열심히 관하고 계신데 공부 부족함 모양이라고 하시지만 부족하다 남친다로 볼 일이 아닙니다.

왜 저 돌에 피가 배일 만큼 사무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을 털어 내시고 오로지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간절하게 놓고 관해보세요. 놓고 관하는데 내 욕심이 끼어들어도 안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지극한 믿음으로 놓고 관하는 게 아닙니다. 놓고 관하는데는 따로 조건이 붙일 않습니다. 다만 자식이 바른 길을 가고 이 도리를 알아서 생활하게끔 마음을 낼 뿐이지 내가 그려놓은 모습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니 그것마저도 되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사망후 큰 소송에 걸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저희 남편이 등산하다가 갑작스런 사망으로 별려서 사업을 수습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남편 사람만 많고 도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감각과 이론으로 지금은 제지리에 올려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똑똑해서 잘 처리하고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욕심은 갖지만 영혼은 내마음 속에 자리잡고 나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봐도 대견스럽게 느껴지고요, 뭔가가 나를 이

끌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제게 마음공부를 권해서 접한 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남편과의 채권, 채무, 토지 등기 이전에 문제가 있어 권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남편 도장을 만들어 찍어 공문서 위조를 하고 모든 것을 망인한테 떠맡겼습니다. 형사소송을 해야 해서 당시(97년 4월)지원장 스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전생에 악연이 있어서 그런지... 책을 두지 말고 놓고 지켜 볼까?

결과를 소송을 하고 주인공 자리에서 열심히 관하고 저는 열심히 심부름만 해준다고요. 일심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 다시 항고해서 지금은 불구속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검사도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불리하답니다.

망인이 증인으로 나와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과거의 업으로 보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주인공 자리에 열심히 관할

믿고 맡기고 관하는데 웃고 사는길 있어 잘살고 못사는게 다 자성부처서 나온것

가요?

이 생에서 부부 인연을 맺어 20여년을 살다가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남편한테 배신감이 느껴져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살다가 가는 것이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전자에 뿌려놓은 씨앗이 현실에 싹이 터서 그렇고 그 아픈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은 또 그사람대로 인과성이지요.

그래서 내게 닥쳐오는 애고가 다 나를 성숙시키는 공부재료인 것입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열심히 믿고 맡겨서 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과성 업보성을 잘 모르니까 팔자운명이 어떻다고 하는데 전자에 녹여놓은 것이 솥을 돌려 나오는 것을 나온 자리에 되 놓는다면 테이프가 지워지

듯이 그렇게 지성으로 놓고 관해야 병고 액난도 녹아내리겠지요.

이혼녀인데 재혼 두려워요

깊이 심해 올립니다. 제가 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10년 안에 헤어진다라는 말이 있어 신랑과 함께 큰스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스님께서 '잘 살거야' 하셨는데 제가 결국은 살아내지 못하고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는 사람이 있는데 전의 사람과 같으며 저번처럼 살고 싶으면 살라고 그런 말이 들려서요.

스님께 우문 드러 죄스름합니다. 전철을 다시 밟게 된다면 그 많은 죄를 어찌게요. 스님 꼭 참회하는 방법과 제가 묻고 갈 말씀이 있다면 도와 주십시오.

자기 주장자를 믿고 자기 주장자에 의지해야 밖으로 누굴 믿고 다른 형상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나를 형성시킨 그 자리,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자리,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자성부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로 누굴 믿고 누굴 따르겠습니까? 자성부처라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 불려도 좋고... 바로 나를 형성시키고 이끌고 있는 한마음 주인공 그 자리를 믿고 항상 놓고 관하세요.

팔자운명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입니다.

사는데 돌고도는 이치 같아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본다면 고양이 고양이 모순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한 쥐가 쥐 모습만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좇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이치다 생각됩니다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군요. 그렇게 돌고 도는 이치 속에 대자유인이 되는 도리가 있으니 그건 어찌시려구요?

딸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집 딸아이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학원비를 주면 내지도 않고 읽어버렸다고 하고 학원에 몰래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빠 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은행에서 돈도 찾아 간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지도를 하여야 되는지요. 올바른 지도를 가르칠 주십시오.

본래 돌이 아닌 도리를 굳게 믿고 '주인공, 너만이 바르게 인도할 수 있지 않아!' 하고 열심히 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딸아이에게도 관하는 법을 일러주시고 말입니다.

성격차로 아내와 불화잖아

평소 현대불교신문을 통하여 스님의 마음 공부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마음 속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생 삶의 과정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병 등 여러 가지 고뇌, 고통과 고통이 많습디다만 그때마다 큰스님의 삶의 지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마음 공부 노력을 조금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해결 안 되는 고민 한 가지를 하소연하오니 가르침을 청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가정화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집사람과의 불화입니다. 제 나름대로 맞추려고 애쓰지만 화목은 저 혼자 노력만으로 안 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성격 부조화, 생각의 이질 등으로 말할 때마다 부딪치고 감정이 상하여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고 밝지를 못합니다. 화목하고 밝은 기정이 저의 소원 중 하나입니다. 지혜로우신 가르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화 벨이 울려도 받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겠지요.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부인께도 마음공부의 도리를 일러주세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격이 안 맞는다. 생각이 다르다 하는 식으로 규정짓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놓고 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실패하고 생계 힘들어요

장사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많은 손해를 보고, 남편은 제부의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했습니다.

같이 의논하다 보니 제부와 남편은 서로를 비하시키는 실정까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동생에게 설삼고 예전 같지 않은 위치, 체면에 갈등이 큼니다.

이제 벗어나겠지 하지만 한편으론 건물이 팔려 이 자리에서도 쫓겨나지 않음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83

우상을 믿고 마군을 모시고 살면서 복을 원하나.

"마음을 잘 쓰라, 생각을 바르게 하라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모름지기 자성부처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상태에서 묵묵히 한 발 떼어 놓는 것. 그것이 생활하는 가운데 바름에 이르는 길이다.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에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한 생각 선하게 돌리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요 부처를 믿는 길이요 내 속에 부처를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된다.

반면에 경계마다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책을 두어 욕심을 낸다면 그 생각 하나에 그만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삶의 길은 지옥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생각에 천당·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니 그래서 마음을 잘 쓰라 하는 것이다."

안 되면 조상 탓 잘못되면 제 탓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일 즐거운 일은 모두 다 제가 잘해서 그러된 줄로 알고 나쁜 일 괴로운 일은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인 줄 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나머지 좋은 건 내 몫, 나쁜 건 남의 몫으로 돌린다.

물론 깨달은 이가 아닌 다음에야 불행한 일을 즐겁다 할 수 없고 나쁜 일을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내 탓으로 돌려 놓지 않는다면 또다시 스스로 업을 짓는 결과가 될테고, 스스로 업을 지었으니 다시 스스로 보(報)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면 스스로 손해를 짓을 하는 셈이니 이기적인 계산치고는 참으로 어리석은 계산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왜 그런 계산을 모르는 것일까.

내 안에 불성이라는 참보배가 있어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마음 안에 부처를 모시고 사는 까닭에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 부처가 곧 내가 된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속의 부처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 이치를 믿는 불자라면 누구나 그러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우기 내 속에 이미 모셔진 부처를



만들고 예경하는 일은 곧바로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주변을 살리는 길이 될 터이니 중생의 알락한 자기사랑식 계산법으로도 그런이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그점을 잊고 사는 것일까. 내 속에 부처를 모셔놓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부처를 외면하고 대신 우상을 숭배한다. 도둑을 모시고 마군을 받든다.

탐·진·치 삼독이 우상이요 오욕칠정이 도둑이요 갖된 소견이 마군이다. 청정한 부처님은 골방에 처박아두고 우상·도둑·마군을 안방에 모시며 살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도둑과 한 집에 살고 마군과 동거할 수 있던 말인가.

그러고도 내 삶이 즐겁고 내 가정이 행복되고 내 사회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이는 애초부터 어불성설, 말이 안된다. 스스로 불법을 훼손하고 스스로 부처를 멸시하고서 어떻게 좋은 보(報)를 기대하고 희망할 것인가. 색은 씨앗을 뿌려놓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꿈꾸는 농부는 없을 것이다.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평할 것인가.

쇠를 잘 버려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녹슬지 않는 쇠, 스테인레스강철이 된다.

거울을 잘 닦으면 거울은 밝아진다. 부처를 내 집에 모시고 내 몸이 모시고 잘 받든다면 삶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빛나게 된다.

탐심 진심 치심, 음심 도심 오욕심, 갖된 소견을 멀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르침의 뜻을 지키면 부처를 모시고 살고 부처와 함께 사는 삶이 된다. 거기에 무슨 불행이니 괴로움이니 하는 게 따라 붙겠는가.

스스로 부처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어도 부처를 내 속에 모시지 않고 마군을 대신 받든다면 그 과보는 불을 보듯 변할 것이다. 그러니 그 과보를 앞에 놓고 나 아닌 누구를, 무엇을 탓하겠는가. 괴로움이 싫고 불행이 야속타 싶거든 지금 당장에 우상을 깨고 마군을 쫓아내고 부처를 모시며 살라. 내 속의 부처를 예경하는 삶으로 돌아서라.

협찬: 유병진